

산업화 이전 오무타의 역사

오무타(大牟田)는 미이케탄광이 있는 곳이자 1800~1900년대 일본 산업화를 뒷받침했던 석탄의 공급지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이전 역사의 대부분을 압도합니다. 고훈 시대(약 250~552년)에 사람들은 아리아케해가 내려다보이는 오무타의 산에 고분(고훈)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고분은 하기노오, 구구리즈카, 구로사키 간논즈카 고분입니다.

오무타는 두 번째로 오래된 일본사 문헌인 『일본서기』(日本書紀, 720년)에서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전설 속의 천황인 게이코 천황(기원전 13년~기원후 130년)이 오무타를 방문하여 지명을 미키노쿠니(‘신목의 땅’)로 바꿨다고 합니다.

헤이안 시대(794~1185) 초 즈음, 미이케(三池) 가문이 오무타 지역의 통치자로 대두했는데, 미이케 가문은 820년에 불교 사찰 후코지(普光寺)를 건립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문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하였는지, 오무타 지역은 ‘미이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헤이안 시대 말기에, 오무타는 미이케 덴타 미쓰요(연대 미상)가 제작한 검으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무타에서 처음으로 석탄이 발견된 시기는 1469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덴지자에몬이라는 농부와 그의 아내는 뿔감과 식재료를 구하러 도카야마 산에 올랐습니다. 저녁 밥을 지으려 불을 피운 부부는 불 아래에 있는 검은 돌도 불에 타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발견을 기념하고자 야케이시야마(불타는 돌의 산) 공원이 세워졌으며, 이곳은 지금도 지표면에서 석탄이 발견되는 오무타의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1621년, 오무타는 다치바나 다네쓰구(1604~1630)가 통치하는 미이케 번(藩, 옛 일본의 행정 단위)이 되었습니다. 다네쓰구와 그의 후손들은 오늘날 신오무타역 남쪽에 위치한 산자락에 있는 미이케 마을에 살았습니다. 1630년대에는 오랜 가뭄 때문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다치바나 가문은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저수지를 만들고 ‘하야가네 메가네바시’ 수로교를 만들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물의 신을 진정시키고 역병을 막기 위한 축제(다이샤 축제의 전신)가 시작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처 산에 있는 신사에서 열린 젠데코 춤과 휴탄 마와시 축제도 수확에 감사를 표시하고 비를 기원하기 위해 에도 시대(1603~1867)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806년 다치바나 가문은 오늘날 후쿠시마현이 된 지역으로 이전했고, 미이케 번은 도쿠가와 막부의 직접 관할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도쿠가와 막부는 미이케번 북부 지역을 야나가와번으로 이전시켰습니다. 미이케번으로 남았던 지역은 1851년 다시 다치바나 가문으로 반환되었는데, 번 체계가 폐지된

1871년까지 다치바나 다네유키(1836~1905)가 통치했습니다. 다네유키는 메이지 시대(1868~1912)에 미이케탄광 공업화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로,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석탄 채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